

결과보고서 요약

사업기관	알타이학연구소		
사업명	북한지역 무속의례 자료 연구(2) -알타이학연구소 소장 만수대탁굿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조현설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업기간	2019.4.1.~2020.2.28	사업비	25,000,000원

1. 사업 목적

- 본 연구는 북한 무속 연구를 통해 사상, 정서, 생활, 문학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여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북한 전 지역의 무속의례의 규명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되 1차적으로는 본 연구팀이 확보한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 자료집』을 간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2. 사업 내용

-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보자인 김금화 무당이 별세하였기에 김금화 만수대탁굿의 정확한 채록과 주석 작업을 실시했다. 채록 및 주석 자료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황해도 굿을 이해하는 무속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본 연구팀이 주석한 황해도 만수대탁굿 주석 자료는 추후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 자료집』이란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3. 사업 성과

- 2018년도 과제인 함경도 망목굿의 특징이 서사성에 있다면 2019년도 과제인 황해도 만수대탁굿의 특징은 연희성에 있다. 서사성이 풍부한 망목굿[서사무가]과 연희성이 풍부한 만수대탁굿[희곡무가]을 함께 해명하여 서사무가와 희곡무가를 아우르는 북한지역 무속의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 김금화의 굿을 계승한 제자들과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과 함께 『김금화의 무가집』 수록 황해도 만수대탁굿에 대한 전사 및 주석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김금화의 진오귀굿, 황해도 대동굿, 황해도 배연신굿이 거행되는 현장을 조사하여 황해도 무속의례와 관련한 새 자료를 확보했다.

알타이학연구소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북한지역 무속의례 자료 연구(2)
-알타이학연구소 소장 만수대탁굿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 기관명: 알타이학연구소
- 사업비: 25,000,000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북한 무속 연구를 통해 사상, 정서, 생활, 문학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여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분단으로 인해 북한 지역 무속과 굿놀이에 대한 정리와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지역, 특히 황해도 지역의 무속 및 굿놀이의 실상을 해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황해도 만수대탁굿 영상 자료를 본 연구팀이 확보.
- 목적
 - 본 연구팀은 북한 무속의례의 규명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되 1차적으로 현재 확보한 황해도 만수대탁굿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8년 과제인 함경도 무속의례와 더불어 2019년 과제인 황해도 무속의례를 실체를 함께 이해하여 북한 및 한반도 전역 무속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황해도 만수대탁굿 영상 자료의 정확한 채록과 주석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자문 위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이 거듭 반복 청취하여 자료를 채록한다.

- 만수대탁곳을 연행한 주요 만신들을 방문하여 만수대탁곳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 북한지역 무속의례 다층적 연구의 토대 마련

- 함경도의 망목곳, 평안도의 다리곳 등과 비교하여 북한지역 무속의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 사상, 정서, 생활, 문학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여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비한다.

○ 만신으로 살아온 실향민의 구술생애사 자료 확보

- 황해도 의 큰무당인 김금화, 김매물은 실향민 출신이다. 실향민이자 만신으로 살아왔던 그들 삶의 내력을 채록한 구술생애사 자료를 마련한다.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 2019년 4월	▪ 만수대탁곳 영상자료 자료 목록 작성
▪ 2019년 5월	▪ 만수대탁곳 연행 원리 분석, 제보자 선정 및 섭외
▪ 2019년 6~7월	▪ 1차 현장 조사
▪ 2019년 7~8월	▪ 2차 현장 조사
▪ 2019년 8~9월	▪ 만수대탁곳 전사 및 주석
▪ 2019년 10월	▪ 알타이학연구소 자체학술대회 개최
▪ 2019년 11월	▪ 통일평화연구원 연합학술대회 발표
▪ 2019년 12월	▪ 망목곳 영상자료 2차 전사 및 주석
▪ 2019년 1월	▪ 만수대탁곳 굿놀이 각편 해제
▪ 2019년 1월	▪ 만수대탁곳 굿놀이 자료 최종 전사 및 주석
▪ 2019년 1월~2월	▪ 3차 현장 조사
▪ 2019년 2월	▪ 결과보고서 완성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 황해도 만수대탁곳 제차 및 연행 양상의 이해

- 황해도 만수대탁곳은 노인들의 만수무강과 돌아가신 뒤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곳으로, 산수왕을 가르며 산 뉘을 드리는 곳이다. 이 곳은 닷새에 걸쳐 하는데, 사흘은 본곳을, 이틀은 영실곳을 한다. 여러 마리의 소, 돼지를 잡아서 하는 큰 곳으로, 대개 양반집이나 무당집에서 한다.

- 황해도 만수대탁곳을 거행한 대표적인 만신은 김금화, 김매물이다. 김금화의 만수대탁곳은 『김금화의 무가집』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김매물의 만수대탁곳은 본 연구소가 영상 자료로 소장하고 있다. 김금화, 김매물의 만수대탁곳의 제차는 아래와 같이 연행된다.

- 김금화의 만수대탁곳 : <신청올림>, <상산부군맞이>, <초부정·초감홍곳>, <복잔내림>, <영정물림>, <제석곳> …(중략) … <마당곳>, <공주전송곳>
- 김매물의 만수대탁곳(2011.10.20.-10.24), 장소(인천 계양곳당) : <초부정>, <복잔내림>, <초감홍>, <선비춤>, <제석곳> …(중략) … <뱅인영감>, <영실 조상>, <뒷전>

○ 황해도 곳을 계승한 만신과의 네트워킹 구축

- 연구 초기 주요 제보자였던 김금화 만신이 별세하였다. 이에 김금화 만신의 제자들과 긴밀히 접촉을 하여 김금화의 진오귀곳을 촬영하고 여기에 참가한 만신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후 김금화 곳을 계승한 김혜경 만신 [서해안 대동곳 및 배연신곳 보존회장]을 자체학술대회에 초청하는 등 김금화 사후 황해도 무속을 전승하는 만신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해 그들과 새로운 네트워킹을 구축하였다.

- 알타이학연구소가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김금화 만신을 위한 진오귀곳 제차는 아래와 같다.

- 김금화의 진오귀곳(2019.04.12), 장소(강화도 금화당) : <신청올림>, <분향거리>, <초부정곳>, <열수왕곳> …(중략) … <서낭곳>, <조상곳>, <마당곳>, <뒷전>

○ 『김금화의 무가집』 수록 황해도 만수대탁곳에 대한 전사 및 주석

- 김금화의 제자들과 새롭게 구축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김금화의 무가집』 수록 황해도 만수대탁곳에 대한 전사 및 주석 작업을 실시했다.

- 본 연구팀은 만수대탁곳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명의 무당을 찾아가 『김금화의 무가집』을 함께 보며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무녀는 김금화 만신 사후 서해안 대동곳 및 배연신곳 보존회장을 맡은 김혜경 만신이다. 김혜경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나이는 만57세(1962년생)이며 만수대탁곳 연행에 참여했던 만신이다. 김금화 만신의 조카딸로 젊은 시절부터 김금화 만신과 함께 곳을 연행하였기에 김금화 만신의 곳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신이어서 인터뷰를 통해 『김금화의 무가집』 사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무녀는 한은희 만신이다. 한은희 만신 역시 만수대탁곳 연행에 참여했으며 현재 나이는 만61세(1958년생)이다. 김금화의 신딸 중 황해도 곳을 고향에 가깝게 연행하는 무당으로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조경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강단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었기에 학술적으로 만수대탁곳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에 대한 연구 심화

- 2018년도 과제인 함경도 망목굿의 특징이 서사성에 있다면 금년도 과제인 황해도 만수대탁굿의 특징은 연희성에 있다. 이에 황해도 만수대탁굿에서 연행되는 굿놀이의 양상 및 특성을 정리했다.
- 황해도 만수대탁굿에서는 <도산말명 방아찜굿>, <사냥굿>, <사또놀이>, <마당굿>이 연행된다. 4편의 굿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기복(祈福)과 웃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 ▣ <도산말명 방아찜굿>에는 도산말명, 지신집 큰애기, 살랑집 며느리, 봉산네 오라바이가 방아를 찜기 위해 등장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아타령’을 부르며 복을 기원하고 웃음을 자아냈다. <사냥굿>에는 만신, 막둥이가 사냥을 하기 위해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 ‘사랑타령’을 부르면서 인간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사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또놀이>에는 신관사또, 구관사또, 전령, 이방이 사또의 이·취임을 위해 등장한다. ‘헌 만신 나가고 새 만신 들어오는 곳’으로 불리는 <사또놀이>를 통해 늙은 신이 물러나고 새 신이 등장하여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민중들의 소망을 확인했다. <마당굿>에는 만신과 장고가 잡귀잡신을 대접하기 위해 등장한다. 이들이 서로 ‘병신난봉가’, ‘과경’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며 복을 기원하고 있음을 살폈다.

○ 연합 학술대회 발표

- 북한지역 무속의례 자료연구(2)에 관한 중간성과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9년도 11월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서 <황해도 무속의 과거, 현재, 미래 - 만수대탁굿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자체 학술대회 개최

- 2019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 보름홀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2019 황해도 무속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3편의 발표와 특별 간담회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술대회 1부에서 건국대학교 이원영 선생은 「<호살량굿>과 <호영산호대감놀이>의 연행의 양가적 제의성과 호서낭 신앙의 원시성 연구」라는 주제로 호환을 겪은 호영산을 달래기 위해 연행되는 황해도 굿놀이의 성격을 살폈다. 이어서 국민대학교 윤준섭 선생은 「신(神) 앞에 펼쳐진 굿놀이, <도산말명 방아찜굿> 연구」라는 주제로 <도산말명 방아찜굿>에 등장하는 지신집 큰애기, 살랑집 며느리, 봉산네 오라바이가 행하는 ‘방아타령’에 주목하여 발표를 개진했다. 서강대학교 김동규 선생은 「

황해도 일월맞이곳의 성격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황해도 만수대탁곳의 주요한 제차 중의 하나인 <일월맞이곳> 속 ‘일월성신’에 대한 의미를 살폈다. 2부에서는 3편의 발표와 함께 강정원(서울대), 김준희(서울대), 최학락(서울대), 김정은(건국대) 선생 등이 좌장, 토론자로 참여하여 황해도 무속의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전개했다.

- 마지막 3부는 서해안 대동곳 및 배연신곳 보존회장인 김혜경 만신을 초청하여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금화 만신의 후계자인 김혜경 만신이 「김금화 사후 황해도곳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황해도 무속의례의 현 위치와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황해도 무속의례 현장 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 황해도 만수대탁곳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황해도 곳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확보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민속학자 이보형이 채록한 황해도 대동곳 및 철물이곳에 관한 음원 자료를 확보했다.
- 현재에도 거행되는 황해도 곳을 현장에서 촬영하여 자료로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는 김금화의 진오귀곳, 황해도 대동곳, 황해도 배연신곳이 있다. 새로 확보한 자료는 해당 곳을 연행한 만신들과 협의한 다음,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관련분야 기여도

○ 북한지역 무속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완성

- 2018년도 함경도 망목곳에 이어 2019년도 황해도 만수대탁곳에 대한 연구는 북한지역 무속의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서사성이 풍부한 망목곳 [서사무가]과 연회성이 풍부한 만수대탁곳[회곡무가]을 함께 해명하여 서사무가와 회곡무가를 아우르는 북한지역 무속의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 북한지역 곳놀이 연구의 초석 마련

- 본 연구가 마무리되면 연구 결과와 채록 자료를 엮어 『황해도 만수대탁곳 곳놀이 자료집』이라는 저술로 학계에 제출할 예정인 바, 이는 향후 북한지역 무속의례 연구의 초석으로서 큰 의의를 지닐 것이며,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 남한을 넘어 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문화콘텐츠 기반 마련
 - 황해도 무속의례와 그 굿놀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공유의, 혹은 인류 공동의 문화자산이므로 이들 굿놀이 속에 내장되어 있는 풍부한 이야기와 인물 형상, 그리고 다양한 민속들은 현대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로도 개발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본 연구는 북한 무속 연구를 통해 사상, 정서, 생활, 문학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여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연구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수행한 함경도 망목굿 무속서사시 연구에 이어서 금년에는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입수한 황해도 만수대탁굿 영상 자료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 황해도 무속에 정통한 황루시 교수를 미리 섭외하여 황루시 교수의 자문 아래 본 연구를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었다.
- 사업의 효율성
 -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체보자인 김금화 만신이 별세하였기에 김매물의 만수대탁굿에서 김금화의 만수대탁굿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력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김금화의 진오귀굿이나 김금화 사후 황해도 무속의례의 연행 양상도 확인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자문위원인 황루시 교수의 인맥을 활용하여 황해도 만신에 대한 인터뷰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 사업의 영향력
 - 본 연구팀이 촬영한 황해도 무속의례 영상 자료[대동굿, 배연신굿, 진오귀굿] 및 출간할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 자료집』은 향후 북한 굿놀이 연구의 초석으로서 큰 의의를 지닐 것이며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 속에 내장되어 있는 연극적 요소와 인물들의 형상 등은 현대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되어 통일 한국의 문화자산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현재 황해도 현지의 만수대탁굿 전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남북의 관계가 더욱 진전하여 황해도 현지 조사에 대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향후 계획

- 북한의 대표적인 무속의례는 함경도의 망목굿, 황해도의 만수대탁굿, 평안도의 다리굿이 있다.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망목굿과 만수대탁굿의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추후 평안도 다리굿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건의사항

- 북한 현지 조사에 대한 접근은 개별 연구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일평화연구원과의 공조를 통해 실제 북한 무속의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함경도(2018년), 황해도(2019년) 지역의 무속뿐만 아니라 평안도 지역의 무속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법인 카드를 수령하고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당 연구소별로 자체적인 법인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기대한다.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황해도 만수대탁굿 굿놀이 자료집』 발간 (2020년 하반기 예정)

□ 성과 자율 지표

- 황해도 무속의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황해도 굿놀이 관련 논문 게재 2건 (2020년 상·하반기 예정)
- 『황해도 만신 구술자 자료집』 발간 (2021년 하반기 예정)